

구속 사역에 나타나는 성령과 피의 연합

요한일서 5:8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물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보여 주신 것이요 피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물과 피의 증언들을 확인해 주신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 이 셋은 하나이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과 그리스도의 보혈을 불가 분리의 관계로 함께 묶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효력을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1. 성령이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과 능력을 발휘하게 한다.

히브리서 9: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
느냐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깨끗케 하는 능력이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을 갖게 된다.

성령께서는 주님께서 피흘리실 때 그 안에 계셨다.

그리스도께서 피흘리신 것이 바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졌다.

성령께서 그 피 속에서 살아계시고 역사 하셔서 그 흘리신 피가 썩지 않고 항상 새롭게 흘리
신 피의 상태로 있게 한다. 그러므로 그 피는 항상 신선한 능력의 샘이 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성령이 항상 그 피가 영원토록 살아 있게 하신다. 영원이라는 개념은 단순
히 계속 되는 끝이 없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도 미래도 없고 언제나 영광스럽고
끝이 없는 현재를 의미한 것이다.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은 현재의 시간 개념에서 영원의
시간 개념으로 들어 간 생명이다. 우리가 얻은 영생은 언제나 영광 스럽고 끝 없는 현재 가운
데 살게 된 것이다. 영생을 얻고 영원한 복락에 참여 한다는 것은 끝없는 생명의 능력이 역사
하고 있는 그 무엇을, 변화도 없고 쇠함도 없는 언제나 그 생명의 충만한 상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영원한 것을 붙들면 그 영원한 것이 우리 속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드러 난다.
절대로 남아지지 않는 젊음과 시들지 않는 영구한 신선함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그 능력은 변
화 무쌍한 우리의 온갖 생각이나 느낌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이다.

“영원한 성령으로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의 피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흘리신 피는 항상 지금
바로 흘리는 효과가 있고, 항상 우리 안에 뜨거운 생명의 능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우리는 죄
로 마음이 어두워 자고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피
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그 능력을 누릴 수 없게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이 세상의 신을 몰아 내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뜨거운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피

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새롭게 하도록 기도해야한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하며, 항상 지속적이며, 항상 새롭고, 독자적이며, 멸하지 않는 생명력을 소유한 것이다. 이 말씀을 뒷받침 하는 성경 구절을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히브리서 7:17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반차에 따라 제사장들이 번갈아 섬기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그 제사장 직이 바꾸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사장 직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 직을 받은 것이다.

16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그 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으므로 항상 살아 계셔서 구원 받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 하실 수 있다.

24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25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이시다.

28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히브리서 9: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14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2.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드러 내고 또한 성령이 효과적으로 일하시게 한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쏟아 부으신 이후에 성령께서도 부어지신바 되었다.

죄가 속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속에 거주 하시는 일은 불가능했다. 피는 사람의 생명이요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사람의 죄를 사하심으로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과 합해 질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 져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과 하나 될 수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므로써 성령의 부으심이 가능해 진 것이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기 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할 수가 없었다.

요한복음 7:39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린양께서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으 오르실 때에 비로소 성령이 강물처럼 흘러 나올 수 있었다.

계시록 22: 1 또 그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흘리신후 승천 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실 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같은 성령이 부어지게 된 것이다.

피와 성령은 서로 떨어야 떨어 수 없는 관계이다. 왜냐하면 오직 피를 통해서만 성령께서 사람 속에 거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3. 피와 성령의 활동이 구속 사역을 수행 할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어느 한 곳에서는 성령의 역사로 말한 것을 다른 곳에서는 피의 역사로 말한다. 성화의 일도 피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주님은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하시고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하심으로 피와 성령이 살리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 하신다(요한복음 6:54,63). 에베소서에서도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 졌다"(2:13)고 하였고 조금 뒤에는 "그로 말미암아 돌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18)고 선언 한다.

히브리서에도 피를 모독하는 것과 성령을 모독한 것을 동일한 것으로 취급한다.

히브리서 10:29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높이며 전하고 그 충만한 구속을 믿는 곳에는 언제나 성령의 충만한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린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할 때 그 성령은 우리를 어린 양의 피의 영광으로 인도한다.

요한계시록 5:6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피와 성령이 어린양에게서 나오며, 그 둘이 함께 어린양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처럼 **구속 사역에 나타나는 성령과 피의 연합을 깊이 이해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